

독일 초등교육 개선 정책과 이에 따른 음악교육 현황 탐색*

함 희 주**

본 논문은 현재 독일의 교육개선 정책에 의해 변화된 초등학교 교육적 현황을 탐색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논문의 목적은 독일의 초등교육 개선정책 및 음악교육 현황을 살펴봄으로서, 우리의 초등학교교육 및 음악교육 발전을 위해 유용한 실제적이고 학문적 연구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논문의 전개는 독일 초등학교교육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념, 개선 정책, 제도 등에 관한 현황을 살펴보고, 새 교육과정을 근거로 하여 초등음악교육의 현황을 정리 제시하였다.

※ 주제어 : 독일초등교육과정, PISA, 개혁교육학, 사물수업, 교과 포괄적 수업

차 례

I. 서 론

II. 본 론

1. 독일 초등학교 교육 개선정책
 - 1) 초등교육 발달과정 및 이념적 특징
 - 2) 교육 개선정책의 중점과제
2. 개선정책에 의한 독일 초등교육 현황
 - 1) 교육제도 및 시스템 변화
 - 2) 개정교육과정의 주요내용
3. 초등음악교육 현황
 - 1) 초등 음악과교육과정의 주요현황
 - 2) 음악교육 개선정책 사례
4. 우리 초등학교교육에 주는 시사점

III. 결 론

* 본 논문은 2008년 공주교육대학교 학술연구비지원에 의해 작성된 것임

** 공주교육대학교 교수

I. 서론

21세기를 위한 독일의 교육개혁은 세기적, 유럽적, 독일 자체적 변화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진행된 새 교육정책은 학제 개편을 포함한 제도적 개혁 등의 새로운 방향을 도입으로, 역사적으로 볼 때 개선 정책의 배경이 이전의 교육개혁 운동과는 다른 차원의 것이다. 최근의 변화는 원래 사회적 변화에 매우 보수적이고, 시대적 조류에 빠르게 대처하지 않는 독일의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독일인들에게는 마치 시험대에 올라선 것과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느낌은 그 동안 독일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몇 가지의 사건에 의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으로 이해된다.

독일이 교육개선 정책을 실행하게 된 배경은 넓게는 세계사적 조류에 따르는 것으로 이해되며, 좁게는 유럽의 체제적 변화에 따른 정책적인 배경에 의한 것으로서 이해된다. 즉, 통독 후 독일교육의 방향전환, 유럽 통합에 의한 제도적 통합, 국제학력평가 등이 바로 독일의 새로운 교육개선 정책을 낳게 한 배경으로 들 수 있다.

첫째로 독일의 통일은, 그 원인과 목적이 정치적이었지만, 현실적으로 사회경제 및 교육부분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동·서독의 교육 이념적 차이는 통독 후 교육의 전반적 체제뿐 아니라, 교육철학, 목표, 방법 등이 변화될 수밖에 없었고, 경제적 차이 또한 학교 지원정책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었다.

둘째로 독일의 교육제도에 대한 변화를 가져온 계기는 유럽통합에 의해서 이다. 유럽 통합 정책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으로서, 1999년에 이탈리아의 볼로냐에서 유럽 각국의 교육정책관계자 들이 모여 고등교육학제에 관한 협약을 하였다. 볼로냐 협약의 주요 과제는 유럽 각국의 각기 다른 교육제도를 서로 연계하여 통합된 형태로 운영하기위해서 제도적 개혁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이 협약의 기본 개혁은 고등교육학제에 관한 것이지만, 협약 후 나타난

각국의 모든 교육개혁에 변화에 영향을 주었다.¹⁾

셋째로 독일의 교육계는 2002년 PISA²⁾의 국제학업성취도평가발표 결과로 인하여 대단한 충격에 빠져있다. 독일인들은 PISA의 결과가 그동안 다른 유럽 국가들 보다 일찍 국민의무교육제도를 법적으로 확립한 독일 교육계의 위상에 불명예를 가져온 것으로 느끼고 있다.

이상과 같이 교육개선 정책은 아동의 재능을 미리 파악하여, 그에 맞는 적절한 교육을 시킴으로서 미래의 독일을 이끌어 갈 인재 양성을 위한 출발점으로서의 교육의 새로운 방향 전환을 시도 하는 목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독일 초등교육 개선 정책과 이에 따른 음악교육 현황을 탐색하고, 우리 초등학교 교육개선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II. 본 론

1. 독일 초등학교 교육의 개선 정책

1) 초등교육 발달과정 및 이념적 특징

독일의 초등학교는 처음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많은 변화를 경험하였으며, “의도된 학교개혁과 실현된 학교개혁이 높은 정도로 일치”한다는 점에서 여러 학교형태들 가운데 가장 모범적인 학교로 인정되고 있다

- 1) 이전까지 독일의 교육 기간은 총13년으로 일관했으나, 볼로냐 협약을 계기로 다른 유럽국가 들과 나란하게 12년제로 개혁하는 중이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독일의 경우 통독 후, 구서독의 13년 과정과 구동독의 12년 과정의 각기 다른 교육기간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변화의 시도에도 반영될 것으로 생각된다.
- 2) PISA(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는 OECD 주관으로 실시하는 만 15세 학생들에 대한 국제 학업성취도 비교 평가이다. 2000년 32개국의 학생들이 참가한 평가 결과에서 독일은 중하위권(20-21위)을 차지하였다. (박현정 외, 2005)

(Gudijons, 1995: 296, 정혜영, 2007 재인용). 독일의 초등교육과정은 제도적으로 독일의 전통적 모델인 4년제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 주가 통합적 학교 모델인 6년제를 운영하고 있다. 원래 독일의 전통적 교육제도는 엘리트 교육과 일반적 교육으로 이원적 구조였다. 오늘날과 같은 4년제 학제의 초등교육을 위한 학교 모델은 약 3세기의 논의 끝에 바이마르 정권에서 제정한 제국초등학교법을 거쳐서 1919년에 설립되었다. 4년제 초등학교는 설립 이후에도 여러 번의 정치적인 격동을 거치면서 외적·내적인 변화를 거듭해왔다. 현재는 개혁적 변화 속에서 기본적 틀인 4학년제의 교육기간에 대한 논란은 계속적으로 있으나, 점차 6년제로 변화되고 있다.

독일 초등학교의 교육적 개념은 설립당시부터 논의된 평등교육의 이념과 개혁교육학 이념이 초등학교 설립의 “근원”으로서 만이 아니라 “완수되어야 할 과제”(Dreus/Schneider/Wallrabenstein, 2000: 9)로서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개혁적 변화에서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초등학교가 기본적 공교육으로서의 확고한 위치를 지키는 주요한 요인은 확고한 이념이 바탕이 된다. 정혜영(2008:49-55)은 독일 초등학교 교육의 발달적 특징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역사적 연속성과 일관성 속에서의 점진적 발달’, ‘외적·내적 발달의 균형’, ‘아래로부터 발달과 위로부터 발달의 조화’, ‘이론을 토대로 한 발달’이다.

역사적 연속성과 일관성 속에서의 점진적 발달

독일 초등학교교육의 특성은 바로 평등교육의 이념이 ‘인간의 기본도야’라는 교육적 연계가 기초를 이루도록 하는 역사적 연속성과 일관된 논의를 계속적으로 이어가는데 있다. 독일 초등학교는 1919년 설립이후 정치적 격동기(1933년, 1945년, 1990년)를 겪으면서 변화를 거듭해왔다. 이러한 변화에서도 ‘평등교육적 이념’은 독일 초등교육에서 완수해야 할 과제로서 역사적 발전의 연속성 안에서 그 일관성을 유지 하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즉, 정치적, 사회적 변화에 의해서 요구되는 현상을 빠르게 대처하

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통된 기초교육을 담당하는 초등학교의 합의된 교육이념은 일관성을 유지하며 안정적 발달을 이루어야 한다는 독일인들의 교육 이념을 나타내는 것이다.

외적·내적 발달의 균형

독일 초등학교의 발전과정에서 외적 형성은 법적 제도화의 발달적 측면을 의미하고 내적 형성은 교육적 개념 정립을 의미한다. 즉, 독일 초등학교의 발달적 특징 중 하나는 바로 학교개혁과정에서 외적·내적 균형이 서로 상호적으로 변증법적관계를 유지 하면서 발전적 과정을 거친데 있다. 학교 발달과정에서 외적·내적 균형이 서로 상호적 관계로서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아래로부터 발달과 위로부터 발달의 조화

독일 초등학교가 발전적 계기를 마련한 개혁적 변화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20세기 초기의 개혁 교육학 운동으로, ‘모든 어린이에게 공통된 초등학교’라는 주제의 외적, 내적 설립이고, 다른 하나는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까지 전개된 ‘학문지향성 원칙’이라는 주제의 외적·내적 개혁이다. 이 두 개혁 주제의 공통점은 바로 “아래로부터”라는 점이다. 이 개혁에 대한 주장의 발단은 바로 교사집단에 의해서 이다. 20세기 초 교사집단에 의한 ‘통일학교운동’과 1969년 이후 초등교사연구회 활동 그리고 1970년대 말에서 최근까지 독일에서 초등교사집단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열린 수업의 독일식 적용 형태인 ‘자유작업’(Freie Arbeit)은 바로 그 실례들이다. 즉, ‘아래로부터’ 이루어진 교육의 변화는 바로 초등 현장 교사들에 의한 것으로서, 초등교육정책 과정에서 행해지기 쉬운 위로부터의 일방적 정책 수행에 의해서 간과되기 쉬운 외적·내적 균형이 적절하게 유지되도록 하게 함이다.

이론을 토대로 한 발달

독일 초등학교의 발달과정에서 중시된 균형적 발달은, 학교정책논의가

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경우와는 달리 확립된 이론을 토대로 수행한다. 물론 근거가 되는 이론은 초등학교 교육에 필요한 교육개념, 교육영역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독일에서 특별히 학문적으로 정립된 초등학교교육학, 초등학교교수학 관련 분야이다. 즉, 학교교육과 관련된 모든 정책은 교육적 행위이기 때문에 도덕적 책임이 요구되는 것으로서, 정립된 이론의 근거는 초등학교의 정책성이나 교사의 전문성확보에 매우 중요하다.

2) 교육 개선정책의 중점과제

독일 정부는 2002년 PISA의 국제학업성취도평가발표 후 모든 분야에서 중하위권을 나타낸 학업성취도 결과로 대단한 충격을 받았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처하기위하여 범정부차원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학업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은 2002년 독일 교육부 장관이 새 정부의 교육정책 프로그램을 발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발표된 새 교육정책 프로그램은 '독일 교육제도의 국제경쟁력강화', '피교육자개인의 능력 균등의 실현'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두고 있고, 구체적 실행목표로서 '독일 교육 구조의 현대화'를 제시하고 있다.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풀어야 할 과제는 포괄적으로 제시되었는데, 그 중 초등학교교육과 관련된 정책의 하나는 '조기교육 강화를 통해서 모든 아동의 재능을 조기 발견하도록 하는 것'이다. 조기교육정책은 아동의 재능을 조기 발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유아교육프로그램을 강화 하고 나아가 초등교육에서 다루어질 영재교육과 연계되도록 하는 것이다. 조기 교육 및 영재교육의 목적은 아동의 재능을 조기에 발견하여 그에 적절한 특성화 교육을 시킴으로서, 미래의 독일 인적자원으로 키우는데 두고 있다.

또 다른 정책으로는, 초·중등 학교분야의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발표한 세 가지의 정책 중 '기초교육과 개별화교육 강화를 위한 전일제 학교운영'³⁾ 방안이다. 전일제 수업의 실행 요지는 사회적 약자의 자녀

들에 대한 지도와 더불어 더 많은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교육적 질을 높임으로서, 장기적으로 인적자원을 계발하는데 있다. 그동안 오전수업으로 운영하던 학교일정이 전일제 수업으로 바뀌면서 이에 필요한 교육환경의 개선 및 수업의 질적 개선 프로그램도 정책적으로 변화되었다.

이외에 새 교육 정책으로 발표된 내용으로 초·중등학교 교육개선 프로그램 중에는 ‘국가적 학업성취기준 마련과 평가시스템 도입’과 ‘교육수준 진단위원회 제도 설치’가 있다. ‘국가적 학업성취기준 마련과 평가시스템 도입’은 학생들이 교육을 통하여 자신의 학년에 맞는 자질과 능력이 배양 되도록 국가가 목표를 정하며, 목표 성취가 어느 정도 도달 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국가 수준의 평가 척도가 제공된다는 것이다.⁴⁾ ‘교육수준진단위원회 제도 설치’는 구체적으로 교육 수준에 대한 현재와 미래를 진단 예측하기 위한 교육수준진단위원회 제도를 설치하여, 진단위원회에서 진단을 통해 그 결과로 교육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고 교육정책 방안을 제시하도록 한 것이다.

2. 개선정책에 의한 독일 초등교육의 현황

1) 교육제도 및 시스템 변화

설립당시로부터 초등교육의 발전적 특징이 되는 외적·내적 균형은, 90년대 이후의 정치·사회적 변화이후 요구된 새로운 모색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외형적 틀을 형성하는 배경이 되었다. 따라서 독일의 초등학교 교육의 현황은 바로 이 두 요인을 토대로 변화된 정치·사회적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새로운 체제를 마련하는 것과 교육의 실제적 영역에 대한 혁신적 논제에서 살펴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독일 초등학교 교육의 현황은,

3) 그동안 독일 학교 수업은 반나절제로서 오전수업만으로 운영하였다.

4) 여기서의 평가는 학생과 교사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교육시스템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의미한다.

한편으로는 학교조직에 관한 제도적(외형적) 변화를, 다른 한편으로는 교육적 원칙에 관한 내용을 살펴봄으로서 알 수 있다.

첫째, 개선 정책에 의하여 변화된 독일 초등학교 교육의 제도적 현황은 대략 다음과 같다(정혜영, 2007, 17-18).

- 초등학교 기간 연장(4년제에서 6년제로)
- 유치원과정과 초등과정의 통합
- 학년제 혼합(제도적 연령 구분 폐지)
- 장애아동의 통합교육
- 전일제 학교운영(반나절 수업)
- 각 초등학교에 자율성 부여(개별학교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 및 특성화)

둘째, 교육적 원칙에 관한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열린 수업과 개별화 수업(Freie Arbeit로서 자유학습)
- 교과 포괄적 수업: 건강교육, 성교육, 환경교육, 평화교육 등
- 학교생활에서 융통성과 리듬 살리기
- 상호적 문화 학습(다문화 교육)과 외국어
- 교과 및 학습영역 개혁(사물수업⁵⁾대신 세계과수업(Weltkunde), 종교 수업대신 윤리학 도입 등
- 미디어 교육
- 원예실습실(학교정원) 설치
- 서술형 평가제도 확산

5) 사물수업(Sachunterricht)은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에서 사물(실물) 관련 내용의 수업을 일컫는 독일 기초교육과정의 특성중 하나로 가장 널리 알려진 포괄적 교육의 한 형태이다. 각 주별로 그 명칭에 차이가 있다. 2002년에 사물수업 교과협회(Gesellschaft für Didaktik des Sachunterricht)에서 지침서를 마련해 다섯 가지의 영역으로 그 내용을 구성하도록 하였다: 자연관련 학습, 기술교육, 공간관련 학습, 역사관련 학습, 사회-문화관련 학습. 사물수업은 포괄적 교육 유형으로서, 교과포괄적 수업(통합적수업유형) 형태와는 구별되어 사용한다(강경원, 2007, pp.73-74).

2) 개정교육과정의 주요내용

독일의 학교교육과정은 주정부 교육정책에 따른다. 따라서 총 16개주 별로 교육과정이 차이가 있다. 연구 진행상 여기서는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 주((Ministerium für Kultus, Jugend und Sport Badenwürttemberg)⁶⁾와 노드라인-베스트팔렌 주의 (Ministerium für Schule, Jugend und Kinder des Landes Nordrhein-Westfalen)⁷⁾의 교육정책을 기준으로 초등학교의 과제, 교육목표, 성격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초등학교의 과제에 관한 예로서 바덴-뷔르템베르크주는 11개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 중 학습과 관련된 과제로는 아동의 소질과 재능을 계발하는 것, 도덕적이고, 종교적이고, 자유롭고-민주적인 사고를 키우는 것, 취학전 교육에서 받은 다양한 교육 경험들을 지속적으로 촉진하도록 하는 것, 잠재적인 능력과 소질을 개발하는 것, 놀이적 학습으로부터 출발하여 조직적 학습으로 이끄는 것, 아동의 고유한 자질과 창의적 능력을 개발시키는 것, 아동의 삶과 학교생활에서 필요한 지식을 갖추도록 하고, 능력을 나타내도록 연습하는 것 등이다. 이외에도 공동체생활에서 필요한 태도와 행동양식을 연습하는 것, 상대의 말을 경청하고, 상호영향을 주고받으며, 더불어 사는 동반자적인 관계를 맺도록 능력을 키워주는 것, 서로 다른 사회문화적 배경에서 성장한 친구들, 특히 장애친구들을 이해하고 협력하는 사회성을 함양 하도록 하는 것 등이다.

둘째, 교육의 목표는 태도의 함양, 능력의 함양, 지식의 획득으로 총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태도의 함양은, 인간, 사회, 사람의 과제, 삶의 의

6) 여기에 소개한 바덴-뷔르템베르크의 교육정책은 2004년 발표된 교육계획 (Bildungsplan 2004)으로서, 주정부에서 발표한 원본을 번역 제시한 것으로서, 자료의 출처는 2007년 한독교육학회·공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원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김창환(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의 논문에서 참조한 것임.

7) 노드라인-베스트팔렌 주의 초등학교교육과정(Richtlinien und Lehrpläne zur Erprobung für die Grundschule in NrW.)은 2003/4년에 시안이 완성되어 2005/6년에 시범과정을 거쳐서 2007년부터 적용한다.((Richtlinien und Lehrpläne zur Erprobung für die Grundschule in Nordrhein-Westfalen, 1. Auflage 2003)

미, 만족과 행운, 평화와 경의, 잘못과 용서, 역사와 자연, 건강, 죽음, 운명, 신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함양하는 것이다. 능력의 함양은 개인적, 사회적, 방법적, 전문적 능력이다. 지식은 인간, 인간의 소질, 문화에 대한 지식; 세계, 시간, 사회에 대한 지식; 역사에 대한 지식; 사물, 자연, 기술에 대한 지식; 경제, 노동, 건강에 대한 지식; 수학, 언어, 문학, 예술, 종교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도록 한다. 노드라인-베스트팔렌 주는 학교교육의 과제와 목표를 같이 통합하여 4개로 제시하는데, 아동의 재능과 개성을 계발한다. 특히 사회성, 음악성, 이외의 모든 실기분야에서 재능이 나타내도록 한다. 학습에서 기본능력, 지식, 숙련에서 개별적 학습 능력과 경험에 따라서 잘 적응되도록 한다. 적극적인 도움을 통해서 학습 체계가 잘 이루어지도록하고 학교생활 계속적으로 잘 이루어나가도록 한다. 학습에 대한 흥미와 즐거움이 계속되도록 함으로서, 초등학교 교육이 총체적 교육과 도야되도록 한다.

셋째, 교과영역에 관한 것으로, 이미 서술한 것과 같이 독일의 교육과정은 주 별로 운영하며 그 구성체계의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 교육과정기본계획안은 6개의 영역으로 구성되는데, 종교교육영역, 수학교육영역, 외국어(영어)교육영역, 인간/자연/문화교육영역, 운동/놀이/스포츠교육영역이다. 이 기본계획영역 중 음악, 미술 등의 예술적 표현 목표는 인간/자연/문화교육영역에 속한다. 노드라인-베스트팔렌주 초등학교교육과정은 국어(독일어)교육영역, 사물수업영역(자연과 삶, 기술과 작업세계, 공간과 주변세계, 인간과 공동체, 시간과 문화), 수학영역 음악영역, 예술영역, 종교영역 으로 구성한다.

3. 초등음악교육 현황

1) 초등 음악과교육과정의 주요현황

독일 초등 음악교육의 현황은 교육과정을 근거로 파악 될 수 있다. 음악교육 정책은 최근에 초등교육 개선정책에 의해서 초등학교교육 체제가

전반적으로 변화되면서 새로운 방향이 제시되었다. 즉, 음악교육 개선정책의 배경은, 본론의 2장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독일 초등교육 전반에서 ‘제도’와 ‘교육적 원칙’의 개선 정책을 근거로 한다.

우선 음악과교육과정 개정에서 ‘제도적 교육정책 개선’으로 인한 프로그램 구성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요인들은, 초등학교 기간 연장(4년제에서 6년제로), 유치원과정과 초등과정의 통합, 전일제 학교운영(반나절 수업), 각 초등학교에 자율성 부여(개별학교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 및 특성화) 등에 따른 음악과 교육과정 개선이다. 다음으로 교육적 원칙 개선의 영향은 학교음악수업 프로그램과 관련된 요인들로서, 열린 수업과 개별화 수업(Freie Arbeit로서 자유학습), 교과 포괄적 수업, 상호적 문화 학습(다문화 교육)에서 음악수업과 관련되는 내용 및 방법 등이다.

독일의 음악과교육과정은 위에서도 서술한 것과 같이 주 별로 다르게 구성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다 제시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대표적으로 노드라인-베스트팔렌 주의 초등학교 음악과 교육과정을 참고로 하여 그 음악교육현황을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 교육과정에서 지시하는 음악교과의 과제는, 학생들에게 ‘음악에 대한 즐거움과 흥미 유발’, ‘음악적 인지, 경험, 표현능력의 지속적인 발전’, ‘음악적 전문성 향상’이 제공 되도록 하고 있다(MLNRW., 2003: 93). 이 세 가지 과제를 성취하기위하여, 음악수업은 ‘음악하기’(Musikmachen), ‘음악듣기’(Musikhören)⁸⁾, ‘음악전이하기’(Musikumsetzen)의 세 개의 활동 영역⁹⁾을 중심으로 학생들에게 각 영역에서 ‘능력과 숙련’, ‘지식’, ‘내면화 및 태도’가 갖춰지도록 지도하는데 구체적 활동은 다음과 같다.

8) Musikhören은 음악듣기로 번역하는데, 우리교육과정에서 지칭하는 ‘감상’이 여기에 포함된다. 그러나 행위자체가 감상만이 아니며, 독일 교육과정의 ‘듣기’는 청각적 활동을 포괄적으로 지칭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듣기’로 표기한다.

9) 이 세 가지의 음악 수업 활동을 우리교육과정 체계와 비교해서 서술하면, ‘음악하기’는 표현적 활동 영역으로, ‘음악듣기’ 감상활동 영역으로, 음악전이는 음악과 신체표현 또는 음악과 그림 등의 통합교과적 개념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음악적 능력과 숙련을 이루기 위한 과제들로는, 음에 대한 지각과 인지 능력의 차이, 편협적인 청취습관을 의도적으로 없애도록 하는 것과 노래와 악기를 사용하여 다양하고, 생동감 있는, 즐거운 음악적 환경이 되도록 하는 것, 그리고 음악적 체험, 표현, 재현능력을 키우도록 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음악적 지식 습득을 위해서는, 음악적 다양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자문화와 타문화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과 기초적 음악이론을 습득하는 것, 그리고 음악의 의미와 작용(영향)에 관한 기본지식을 습득하는 것이다.

내면화와 태도를 형성하기 위한 수업과제는, 우선 ‘음악하기’, ‘음악듣기’, ‘음악전이하기’에서 학생들이 즐거움과 흥미를 얻는 것만이 아니라, 더 발전시키고 심화되도록 한다. (수업시간은) 학생들이 음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잘 들을 수 있도록, 인지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음악으로 자신을 이완시킬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한다. 이외에 호기심과 관대함으로 음악의 다양성을 접하도록 하는 것과 일상에서 광범위하게 제공되는 음악에 대하여 입장과 비판능력을 갖도록 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둘째, 교수·학습영역에 관한 내용으로, 우선 학습형식의 교과적 특성으로는, 성악과 기악에서 개별적 또는 협동적 ‘음악하기’와 나아가 ‘음악전이하기’가 가능하도록 할 것, 충분한 연습과 연습의 효과가 전달되도록 할 것, 인지적, 심동적, 정의적 영역이 골고루 작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음악과의 의사소통이 되도록 하는 것, 청음력은 행위지시적 방법으로 지도할 것, 질문을 유도하여 음악적 문제를 해결 하도록 할 것, 체계적 음악학습이 되도록 할 것, 자신만의 음악창작과 즉흥연주를 위한 공간을 제공할 것 등으로 구성된다.

수업형태의 원리에 대한 내용으로는, 대개의 학생들이 대중매체를 통하여 음악을 접한다는 사실과, 실제로 음악을 하는 학생들은 소수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음악수업은 학생들의 다양한 음악적 능력과 개별적 재능, 실기 경험을 고려하고 적극적인 음악하기, 음악이해하기, 음악향유하기 활동으로 이끌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는 점을 중시하도록 한다.

특히 교사는 수업계획을 할 때 남학생과 여학생의 음악에 대한 호기심, 흥미가 다른 차이를 이해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수업이외로 습득되는 것으로서, 학생 자율 활동으로서 기악적, 성악적 활동 또는 음악과 움직임(신체표현)활동 등에 의한 숙련과 능력, 또한 학생들의 음악적 삶(생활)에서 경험되는 다양한 음악체험에 의한 인지능력과 입장의 차이, 청취습관 등을 수업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학생들이 음악에 동화되고 사회성을 이루기 위해서도 그들이 즐겨하는 음악을 수업에서 받아들이도록 노력해야한다. 음악이란 언어 없이도 인간과 인간을 이해시키는 영향력을 가진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음악교과에서 학생들이 음악하기, 음악듣기, 음악전이하기로서 의사소통이 되도록 하는 기회로서 제공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서 음악수업은 인격(개성)을 발달(인격형성)시키고 사회적(사회화), 간문화적(문화화) 학습이 되도록 한다고 제시되고 있다.

음악교육의 기본적 토대에 대한 규정도 파악할 수 있는데, 우선 음악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 지식으로 다양한 기보법과 기초적인 음악적 개념을 들고 있고, 수업에서 교수·학습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음악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은 교수법과 지도방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정보전달과 개별적으로 사용되는 미디어에 필요한 정보와 의사소통 기술은 학습에서 필요한 것으로 규정하였다.

음악수업의 내용과 방법은 타 교과와 접목시키도록 함으로서, 실제 수업지도방법은 통합지도적 원리로 운영할 것을 권장한다. 예를 들어, 간 문화적 교육 테두리 안에서 음악은, 주변국가 들이나 또는 소수민족 그룹의 공동체적 활동(노래부르기, 연주하기, 춤추기)으로 적용한다. 이러한 활동은 특히 영어교과와의 통합수업으로 제공되도록 한다.

실제 초등학교교육에서 음악은 확고한 자리를 확보하고 있다(예를 들어, 일상적인 노래 부르기, 악기연주하기, 수업결과로 행해지는 학생들의 규칙적인 음악활동, 명절이나 기념일, 축제 등과 관련된 노래 부르기나 놀이하기, 합창, 무용 놀이 등). 또한 초등음악교육에서 필수악곡의 지정은 필요하다고 보고 학생들이 다 같이 노래 부를 수 있는 레퍼토리 리스트를

만들어 제공 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교과와 활동영역은 크게 세 개의 영역(활동)으로 구성 하는데, '음악하기', '음악듣기', '음악전이하기'이다. 이 세 개의 영역은 '음악적 이해' 라는 테두리 안에서 서로 횡적, 종적 체계로 연계를 가지며, 실제 학습에서 포괄적으로 운영되도록 한다. '음악하기', '음악듣기', '음악전이하기'의 세 영역은 그 아래로 상세화 된 하위과제를 가지며, 수업적용 학년 구분으로 1/2학년과 3/4학년으로 각각 구분된다.

'음악하기', '음악듣기', '음악전이하기'의 세 영역은 실제수업에서 주요과제와 서로 관련되어 있다. 이 세 영역은 위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각각 여러 학습주제에 의해서 그 중심이 다양하게 적용된다. 세 영역은 서로 좁은 관계를 형성하며 놀이적이고, 창조적이고, 형태적 음악적 요소가 서로를 본질적으로 떠받치고 있다. 감성적, 심동적, 인지적으로 균형 있는 상호작용은 매우 의미가 있다. 특히 '듣기'는 모든 영역 안에서 기초적인 역할을 한다.¹⁰⁾ 실제수업은 이 세 영역을 서로 상호 관련시킴으로서 자연스럽게 통합적 학습 활동으로 이끌어 가도록 한다.

2) 음악교육 개선정책 사례

독일 초등학교의 음악교육 개선 정책은 일반주지교과 교육에 대한 개선 정책이 PISA 이후에 대두된 교육시스템에 반성과 개선정책 방향과 무관하지 않다. 초등음악교육도 각 주, 시 별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지는데, 주정부의 관리아래 교육청과 초등학교의 공동 작업으로 '새로운 음악교육 프로젝트'라는 명칭으로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¹¹⁾

새로운 음악교육프로젝트의 목표는 모든 어린이에게 한 개의 필수 악기

10) 이 부분과 관련하여, 우리의 개정 교육과정(2007)에서 '음악감상'이 독립적 활동 영역에서 제외되어 편성된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1) 새로운 프로그램의 한 예로서 독일 노드라인-베스트팔렌 주가 2003년부터 보쿰, 루르스에서 실시하는 '모든 아동에게 한 가지의 악기를'이라는 프로젝트를 들 수 있다.(www.jedemkind.de)에서 참조할 수 있음.

를 하도록 하는데 있다. 궁극적인 목적은 악기를 통해 음악문화 경험을 함으로서 이들이 성장 후 문화적으로만이 아니라, 인격화와 사회화를 이루게 하여, 미래의 독일을 이끌어 가는데 필요한 성숙한 시민으로 양성하는데 있다. 특히 초등교육에서 이러한 프로젝트가 음악적 성장발달과정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는 근거는 음악조기교육의 중요성에 있다. 이에 대하여 독일 중앙 문화 연구 단체가 발표한 독일 청소년의 문화적 환경과 수준에 대한 조사 연구 자료에 따르면 문화에 대한 관심도가 가장 높은 연령대는 14-25세 사이의 청소년인데, 그 이유는 이들이 초등학교 시절에 경험한 문화적 환경이 토대가 된 것이라는 점이다(2004, 장은언, 2008 재인용). 이러한 조사 연구를 살펴볼 때 초등학교시기에 악기배우기를 경험한 아동들은 청소년기에 문화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높은 수준에 있다는 것이다.

음악교육 개선 정책의 핵심은 악기교육 강화에 있다. 일반 초등학교에서 정규수업이외로 악기를 가르치는 것은 각 학교의 실정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또한 모든 아동에게 한 가지 이상의 악기를 골고루 다 가르치기 위해서는 우선 제도적, 재정적으로 지원이 따라야 한다. 따라서 독일은 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방법으로, 원래 독일 음악교육의 특성중 하나인 음악학교(Musik Schule)와의 연계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즉, 악기수업을 각 초등학교에 인접한 시 음악학교에서 담당한다. 음악학교의 교사들은 음악을 전공한 전문 음악교사 들로서, 연주가 자격만이 아니라, 실기 교사 자격을 소지한 전문가 들이다. 음악학교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운영하기 위해서 전통적으로 운영해오던 자체 프로그램- 그동안 전문적 음악교육만을 담당하던 음악학교의 프로그램- 을 일반적 음악교육 수준으로의 보편적 프로그램을 병행 시키고, 이에 따른 교육내용, 음악교사를 위한 수업 자료 준비, 참가 초등학교 음악수업 프로그램 강화 등으로 초등학교 음악교육과의 내용적 연계 프로그램으로 바꾸었다.

음악교육 개선을 위한 악기교육의 목적은 위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악기 교육만이 목적이 아니라, 인성의 발달에 두기 때문에, 교육프로그램도 놀이를 통한 수업으로 진행한다. 따라서 수업의 형태는 놀이와 연습으로

한다. 수업의 단계는, 초기 단계로서 음악과 함께하는 놀이를 통해 악기에 대한 소개로 시작하여 일정한 기간 악기와 친숙해 지도록 한 후, 점차 노래 부르기, 율동하기(신체표현), 그림그리기 등으로 넓혀 나간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음악적 개념, 독보 및 기보 등 음악 이해에 필요한 영역을 배우게 된다. 악기는 고전적 악기를 비롯하여 기타, 만돌린 등이 있고, 독일 내 소수 문화권의 악기도 사용한다. 악기 수업은 단순히 연주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악기의 구조, 원리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모조악기의 제작도 함께 배운다.

음악교육 개선 정책의 또 다른 예로서, 2004년 8월부터 전일제 학교를 운영하는 헤센(Hessen) 주의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교육과 여가를 다 포괄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실시하고 있다.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의 내용은 교과보충 및 확장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스포츠, 문화적 활동 등이 포함된다. 음악은 문화적 활동의 일환으로 운영되는데, 아동들에게 음악공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공립단체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주로 청소년 국(Jugendhaus)에서 관리하는데, 주로 음악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서 운영되는 모든 지원은 독일의 사회법전의 아동·청소년 법에 기초한다. 즉, 청소년들이 이러한 교육개선 정책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달시키고 자아의식을 강화하고 자신의 삶을 독자적으로 계획하고 결정하면서 관심을 추구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정기섭, 2007, 109-118).

4. 우리 초등학교 교육에 주는 시사점

독일의 초등교육개선정책은 기초교육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교육적 원인에 의해서 부정적 영향을 가져온 독일 특유의 교육제도, 내용 등의 개선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여 독일의 어린이 들이 미래의 독일을 이끌어 가는데 필요한 효율적 방향을 제공하는데 있다고 이해된다. 따라서 이

러한 교육개선작업은 음악교육 개선작업으로 연계되어, 기초 교육으로서 초등학교 음악교육이 아동 개개인의 인격을 성장시키고, 사회화와 문화화를 이루도록 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지향하는데 있다. 우리 초등학교 교육은 지금까지 양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전인적 인간형성이라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접근방식은 편협한 점이 없지 않다. 특히 교과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주로 주지교과 쪽으로 편중되어 있어서, 과연 교육과정의 궁극적으로 미래의 한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인적자원 개발에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이 필요하다.

독일 초등학교의 음악교육 개선 정책은 학교와, 시정부와, 학부모가 서로 협력하여 아동의 성장발달을 돕는 종합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학교에서 적용하려고 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도 그 목적과 목표, 운영방법이 효율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선진 각국의 다양한 사례를 조사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독일의 음악교육정책은 음악학교라는 제도적 시스템이 국가 차원에서 뒷받침 되어 효율적인 방법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아동이라 할지라도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움을 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 참가할 수 있다는 점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교육개선 정책은 교사 교육과정에 대한 합리적 방안도 고려된다. 독일의 교육개선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부딪치는 문제 중 하나가 교사의 수급에 관한 것이다. 미래의 국가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과정에서부터 질적으로 우수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데, 문제는 교사의 수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독일과 같은 선진교육제도의 개선 정책을 우리의 현장과 비교할 때 가장 어려운 문제는 교사 일인당 학생 수가 너무 많다는 점이다. 학급의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은 교육의 효과를 증대하는데 기여한다. 따라서 우리의 초등학교에서 교육과정에 필요한 개혁은 우선 모든 학급의 인원수를 줄이고 교사의 수를 늘려서 질적으로 우수한 교육 현장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V. 결 론

본 논문은 이상과 같이 독일의 초등학교 교육 개선 정책과 그에 따른 초등교육의 방향, 교육과제, 목표 등과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성격을 제시하였다. 독일의 초등학교는 학교 교육을 통해서, 아동들이 삶과 생활세계를 이해하는 것이 주된 활동이다. 이것은 또한 본질적으로 학교 교육을 통해서 지식과 삶의 차이를 점차 좁혀나가는 길을 아동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함에 있다. 독일 초등학교의 교과편성은 어떤 교과에 개별성을 강조하기보다, 통합적 성격의 교과 포괄적으로 편성되어 있다. 따라서 음악 교과도 음악적 특성을 고집하기보다는, 문화의 한 영역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의 함양이라는 목적이 매우 중시된다.

교육개선 정책은 효율적이고 분명한 목표를 지향하는 독일 특유의 교육이념을 반영하고 있다. 음악교육정책도 이러한 개선 정책의 일환으로, 아동들에게 음악을 강조하기 보다는 미래의 독일을 이끌어 가는데 필요한 자질과 인격을 함양하기 위한 음악교육이 되도록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참 고 문 헌

- 강경원(2007). 독일 초등학교의 교과 포괄적 교육. 독일 초등학교 교육의 현황과 시사점. 한독교육학회, 공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원 공동 학술대회 집
- 김창환(2007). 독일의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학업평가. 독일 초등학교 교육의 현황과 시사점. 한독교육학회, 공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원 공동 학술대회 집
- 박현정의 (2005). PISA 학업성취도분석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장은언(2008). 독일 루르지방의 새로운 음악교육 프로젝트의 교육적 학문적 의미
- 정기섭(2007). 독일 초등학생의 방과 후 활동. 독일 초등학교 교육의 현황과 시사점. 한독교육학회, 공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원 공동 학술대회 집
- 정혜영(2007). 독일의 초등학교 교육. 서울: 문음사
- 정혜영(2008). 독일 초등학교 설립과 발달. 독일 초등학교 교육의 현황과 시사점. 한독교육학회, 공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원 공동 학술 대회집
- Gudijons, H.(1995). *Pädagogisches Grundwissen*. Germany: Bad Heilbrun, 296, 정혜영(2007) 재인용
- MLNRW(2007) *Richtlinien und Lehrpläne zur Erprobung für die Grundschule in Nordrhein-Westfalen*, 1. Auflage (2003)
<http://www.bmbf.de>
<http://www.jedemkind.de>

ABSTRACT

**Improvement Policy in Elementary School
Education in Germany and Exploration of
the Present Status in Music Education**

Ham, Heeju

The study is composed of the contents which are searching for educational status changes in elementary schools resulting from the new educational_improvement policy in Germany. The purpose of the thesis is to provide research materials that are practical and academic by researching the present condition in the improvement policy on the elementary school education in Germany and the present condition in the music education for the development of elementary school education and music education. This thesis focuses on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principles that make us understand the elementary school education in Germany, reform policy, and system and further recommends strategic points based on the new course of curriculum of the elementary music schooling.

Key words : course of elementary education in Germany, PISA, reformatory pedagogy, object studies, subject-inclusive lessons

심사 날짜: 11월 7일
수정 날짜: 11월 27일